

特輯 :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돼지 질병의 疫學的 特性과 對策

是近 7년간

우리나라의 돼지질병 發生動向	金 鳳 煥
돼지콜레라.....	姜 炳 稷
돼지의 消化器 傳染病.....	金 鳳 煥
돼지의 呼吸器 傳染病.....	朴 應 鎭
돼지의 流死産症.....	金 龍 熙
돼지의 皮膚病.....	權 寧 邦

最近 7년간 우리나라의 돼지질병 發生動向

돼지 疾病 發生狀況을 一目瞭然하게 기록한 統計資料가 없어서 돼지질병의 發生動向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두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돼지는 돼지콜레라와 같은 傳染病을 빼놓고는 좀처럼 병에 걸리지도 않지만 걸리더라도 한 두번 투약하다가 시원치 않으면 自家屠殺하여 이웃끼리 나누어 處分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疾病發生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養豚團地에서나 全業養豚 또는 企業養豚場에서는 被害가 큰 疾病이나 새로운 疾病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행이도 이러한 可檢物이 家畜衛生研究所나 시·도 家畜衛生試驗所 또는 大學 등에 依賴되어 病性鑑定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질병의 發生狀況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7년간 家畜衛生研究所에 病性鑑定 依賴된 돼지 可檢物의 병성감정 결과를 토대로 1977~1983년 사이의 돼지 疾病 發生動向을 分析해 보았다.

큰 “돼지 꿈”과 돼지 불황기를 함께 맞본 최근 7년간의 돼지 질병 발생동향을 조사한 결과

는 그림 1과 2에 있는 바와 같다. (그림 1, 2)

지난 7년간 바이러스성 돼지질병은 404건으로 전체 病性鑑定 건수의 39.6%나 되어 가장 높은 發生率을 나타내었으며 細菌性 疾病의 發生도 전체의 38.3%로 많은 발생을 보였다. 이와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傳染性 疾病이 전체 질병발생건수의 78.1%나 되었다. 여기에 곰팡이와 기생충에 의한 전염성 질병을 합한다면 무려 80.6%나 되므로 우리나라의 돼지 질병은 傳染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돼지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의 최근 7년간 發生動向을 살펴보면 세균성 질병의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은 반대로 증가하는 조짐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發生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돼지 콜레라를 위시하여 傳染性 胃腸炎, 돼지 日本腦炎,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 몇가지 밖에 안되는 돼지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이 계속 增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養豚業의 큰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原因療法이 없기 때문에 徹底한 豫防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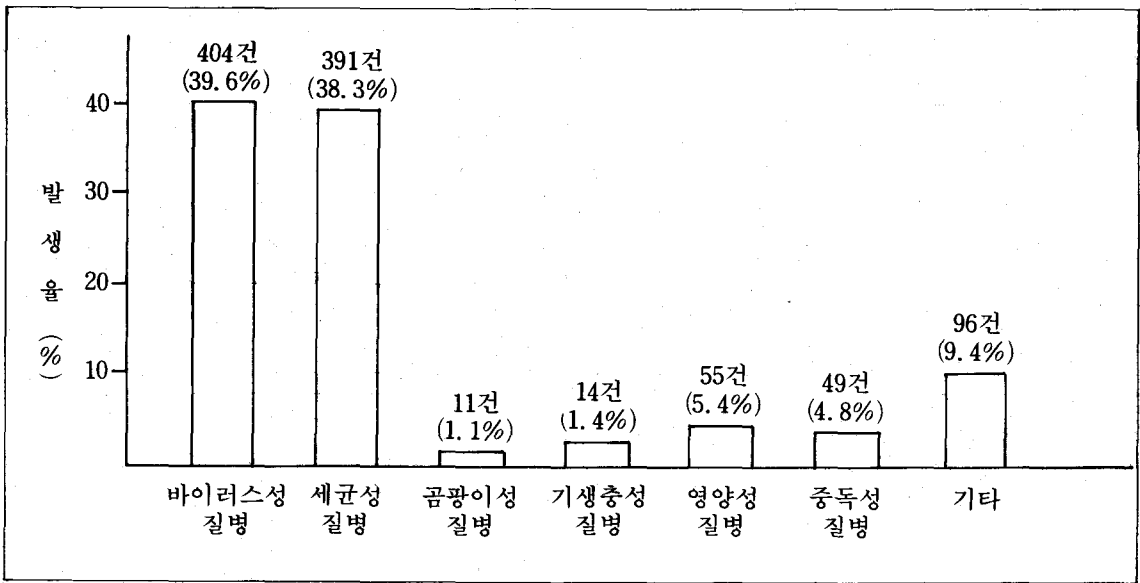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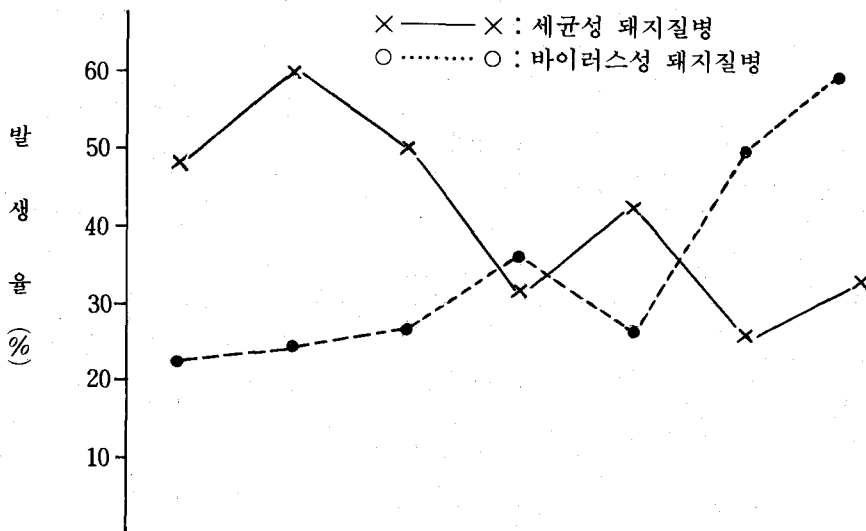


Fig. 1. 돼지질병의 원인별 발생상황 (1977 - 1983)



연도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총병성감정건수	92	69	141	160	132	187	239	1020
세균성질병 (%)	44 (47.8)	41 (59.4)	68 (48.2)	49 (30.6)	58 (43.9)	49 (26.2)	80 (33.5)	391 (38.3)
바이러스성질병 (%)	21 (22.8)	17 (24.6)	35 (24.8)	56 (35.0)	56 (26.5)	98 (50.3)	142 (59.4)	404 (39.6)

Fig. 2. 最近 7년간 細菌性 및 바이러스성 돼지疾病의 發生動向 (1977 - 1983)

Table 1. 最近 7년간 우리나라에서 發生報告된 중요한 돼지 疾病(1977-1983)

病 名	發生件數(%)	備 考
돼지 콜레라	300 (29.41)	매년발생, 이유자돈과 육성돈에 문제가 큼
돼지 일본뇌염	28 (2.75)	초산돈 및 백신미접종돈에 주로 발생
돼지 전염성 위장염	22 (2.16)	매년발생, 여름철에도 발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16 (1.57)	주로 초산돈에 문제됨
돼지 인플루엔자	9 (0.88)	1982년부터 발생보고 됨
대장균증	94 (9.22)	연중 전국적으로 발생, 실제발생건수는 이보다 큼
파스튜렐라 폐염	87 (8.53)	육성돈에 다발, 돼지콜레라와 합병
살모넬라균증	70 (6.86)	이유자돈에 많이 발생
돼지단독	21 (2.06)	백신미접종돈군에 발생
위축성비염	15 (1.47)	전국적으로 만연(감염율 18.4~52.4%)
마이코플라즈마 폐염	14 (1.37)	전국적으로 만연(감염율 28.0~55.6%)
돼지적리	14 (1.37)	8~14주령의 육성돈에 많이 발생, 증가추세
삼출성포피염	10 (0.98)	자돈에 많이 발생
장독혈증	8 (0.78)	포유자돈에 발생
홍막폐염	7 (0.69)	최근에 문제되기 시작,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VitE-셀레늄결핍증	37 (3.63)	근년에 문제되기 시작함
약물중독	31 (3.04)	철분중독, 기타(?)
Biotin 결핍증	10 (0.98)	근년에 문제되기 시작함
곰팡이 중독	6 (0.59)	〃
Zinc 결핍증	4 (0.39)	〃

防疫으로 병을 根絶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병의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안다.

細菌性 疾病 중 發生頻도가 높은 것은 大腸菌症, 파스튜렐라肺炎, 살모넬라菌症 등을 들 수 있다. 近年에 와서 큰 양돈장이나 養豚團地에서 문제시 되기 시작한 질병으로는 돼지의 萎縮性 鼻炎, 마이코플라즈마肺炎, 돼지 赤痢, 헤모필루스 胸膜肺炎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흔히들 이 질병들을 일컬어 “現代 養豚의 公敵”이라고 한다. 이러한 병의 發生이 근년에 와서 增加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질병의 防除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요한 돼지 질병을 요약하여 보면 표 1에 있는 바와 같다. 돼지 콜레라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發生頻도도 전체 질병발생건수의 29.4%나 되어 가장 문제시되는 돼지 질병으로서의 위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 돼지 콜레라의 防疫에 대한 再考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표 1에 있는 돼지 질병은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병들의 疫學的 特性을 좀 더 파악하고 豫防 및 治療는 물론 防疫을 徹底히 하여 疾病으로부터 보호되는 양돈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獸醫師들의 큰 役割이 요구되는 시기가 왔음을 깨닫고 이에 대처해야 할 줄로 믿어 본 특집을 엮어 보았다.